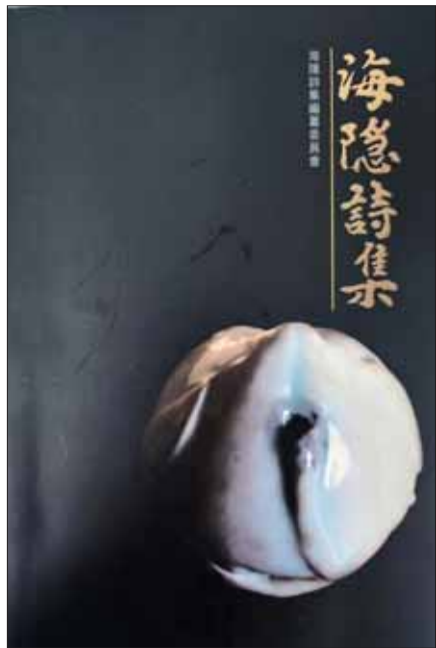


이 시대 마지막 선비, 해은(海隱) 권영도 선생 시비 제막식 거행

삶과 철학을 표현한 한시(漢詩) '해은시집' 함께 발간



해은시집

案頭獨讀萬卷 안두독명독만권
 靑夢머리에 훑볼 밝혀 많은 책 읽으셨네
 春夢名利投蒼林 춘몽명리투창림
 봄꿈 같은 명예(名譽)와 이익(利益) 푸른 숲에 던지시고
 爲己之學獨工儘 위기지학독공진
 참된 나를 위해 홀로 공부에 정성(精誠) 다하셨네
 石硯墨雲得靑風 석연묵운득청풍
 벼루에 간 먹구름 청풍(淸風)을 얻으시니
 貞珉世德輝與天 정민세덕휘여천
 단단하고 아름다운 세덕(世德) 하늘과 더불어 빛나리라

심헌 한영구 서예가는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손 효지시야)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임신행도 양명어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라고 공자가 말했다. 임신행도(立身行道)하여 부모를 나타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이다. 권오신 회장이야말로 그런 분이다. 훌륭한 글을 시집으로 발간했는데 여러분도 읽고 후학들이 마음 깊이 새겨서 후세에 더욱 빛나기를 기원드린다”라고 축하했다.

권명호 국회의원은 “권오신 회장은 족친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셔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데 도리라고 생각한다. 권오신 회장의 말씀과 행적을 보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른다. 선전을 위해 이처럼 시비 제막식을 성황리에 거행하게 되어 후손으로서 기쁜 마음 금할 수 없다. 권가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인의 말마져 권오신 회장은 인사말에서 “선고(先考)께서 열반에 드신 지 30년이 되었다. 돌아가신 바로 다음 해에 시비를 세우드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송구스럽지만 30년 만에 동생과 의논하여 시비를 세우고 시집을 발간했다. 후손으로서 삶의 지표로 삼을 것이다. 해은공이 살아계실 때 세 종류로 시간을 쓰셨다. 아침에는 상량문이나 비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나 손님을 맞이했다. 낮에는 한의약을 지리러 온 사람들에게 한의약을 지어주었다. 늘 불뛼다. 저녁에는 계란 갖고 침 맞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공짜 침도 수없이 놓아 주었다. 살림이 넉넉지 못했는데도 침나누고 저녁상까지 차려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돌아가셨을 때 문상객이 많아 차가 막힐 정도였다. 어머니는 평생 뒷바라지를 하셨다. 그래도 큰소리 한탄 바깥으로 나가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하소연도 다 들어주었다. 그야말로 정경부인이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살아가면서 은혜 베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아들 권오길 전 농협중앙회 영천지부장은 “늦게나마 시비 제막식을 가졌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들 손주 두 명은 시비 앞에서 할아버지가 쓴 한시 “여수암산에 올라”와 “금장낙산”을 차례로 낭송했다. 이 두 시는 해은공의 대표적인 한시로 시비 위아래로 새겨져 있다.

여수암산에 올라
 (登女首巖山, 등여수암산)
 暮春三月日晴開(모춘삼월일청한)
 봄날 삼월이라 청명하여
 松樹攀登上巖間(송수반등상대간)
 솔숲길 헤집고 오면 정상
 靑北仙桃山嶺落(靑北선도산용락)



해은시비

북쪽 선도산은 우뚝 솟고
 跳南鷗遊嶺浮還(노남취승령부환)
 남쪽 치술령은 구름 사이 않았네.
 千年念佛池存積(천년념불지존경)
 천년 염불지는 거울처럼 맑고
 百世杜陵開閣閣(백세두릉동개벽)
 백세의 두릉은 열려있어
 古昔由來傳有號(고석유래전유호)
 태고적부터 전해오는 그 이름은
 謂之玉女首巖山(위지옥녀수암산)
 옥같은 여수암산 이라네

금장낙산(落雁落羅 金장낙산)
 古琴藏上已藏琴(고금장상이장금)
 옛 금장에 숨긴 거문고
 江畔雁離化石沈(강반안종화석침)
 강가 기러기 발자취에 묻혀 돌이 되고
 雲物無窮城樹老(운물무궁성수로)
 하세울 성을 지킨 등 굽은 노송이며
 風光不沒野烟深(풍광불몰야연심)
 깊은 들녘 풍광은 옛모습 그대로네
 世傳百結仙翁事(세전백결선옹사)
 신선 백결선생의 사적이야
 水滸千年舊國音(수滸천년구국음)
 천년고도 소리는 물결에 들리는 듯
 荒臺南北平沙外(황대남북평사외)
 황량한 누대 밖 넓고 긴 모래톱에
 白鷺時聞上下聲(백로시회상하성)
 이따금 해오라기 세월을 물고 노닌다

이 한시는 '해은시집(海隱詩集, 해은시집편찬위원회)에 수록되어 있다. 해은시



시비 제막식 전 모예 봉행. 맨아들 권오신 회장



권명호 국회의원, 권오신 회장, 권영도 이사장 등 기념촬영

유연정 등의 흑백사진이 운치를 더한다.

이렇게 보면 해은시집은 시집(詩集)만이 아니라, 시조 태사공부터 그 연원을 밝히는 시집(始集)이며, 시대마다 걸출한 현조들을 소개하는 시집(時集)이기도 하다. 마치 시집 속에 집안의 내력과 옛 추억이 켜켜이 쌓여 역사의 집으로 탄생했다. 이런 시집 다시 나오기 힘들 듯하다. 특히 제6장에서 권오신 회장은 부친과 모친에 대한 그리움을 사무쳐 가슴이 터질 듯하다고 표현한다. 울 엄마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달이 뜨는 새벽에 우물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올려놓고 자신들을 위해 천지신명께 빌고 빌었다. 이런 정화수는 몇천 사발을 넘겨 올렸을 것이라고 하니 그 심정이 가슴에 와닿는다. 공자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아 비로소 효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무려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모의 정이 마치 어제처럼 절절하니 읽는 이로 하여금 입을 때마다 가슴 저 밑에서 뜨거움이 올라와 결국 눈시울을 붉히게 하고 만다. 그뿐인가 울 엄마는 다음 생엔 꼭 해탈할 분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누구든지 목이 매이고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사무친 정이 이러하니 어찌 30년 만에 시비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30년 만에 그 마음을 돌이켜 새긴 '해은시비'는 시인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자 효심으로 세운 최고의 결자 아닐 수 없다. 울림이 크다.

역자 조철제는 “해은의 시는 모두 160여 수에 지나지 않는다. 본디 시집이나 문집을 내려하지 않고 글을 지으면 곧 버렸다. 만년에 이를 수집하니 없어진 글이 더 많았다. 그렇지만 그는 연대순으로 정서하여 '해은시집(海隱詩集)'을 남겼다. 아들 오신과 오길은 이를 국역하려고 20여 년 전에 나에게 부탁했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그가 30년 만에 누웠을 시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보이지 않게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꾸준히 준비해 왔음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아직도 붓을 놓을 때까지 쓴 시인의 옥필 원고가 200자 원고지 2만장이 넘게 남아 있다고 하니 원고지가 죽비가 되어 게으른 독자의 등을 내려치는 듯하다.

만아들 권오신 회장이 기억하듯이 해은 시인은 “1993년 5월 5일 이른 아침에, 경주에서 무명웃을 걸치고 산림에 묻혀 사는 선비 초야포의(草野布衣)로, 포항으로 우거해서는 스스로 학문과 재주를 세상에 숨기고 사는 삶을 사셨던 아버지는 생의 끈을 놓았다.” 그러나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만아들과 둘째 아들은 대산백 같은 해은 시인의 사적을 세상에 남기고자 만고의 방명(芳名)을 해은시비 뒤에 새겼다.

가훈이 정언(正言) 정로(正路)이다. 바른 말 바른 길이다. 그래서일까 만아들 권오신 회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포항문화방송 기자이자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1986년에는 한국기자상과 한국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딸손녀 권도경도 언론인으로 문화일보 차장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시인과 언론인의 유전자를 그대로 잇고 있다.

해은시집 날개에 실려 있는 한시인漢詩人 해은 선생의 생애를 요약 소개한다. 시인의 휘는 영녕(靈寧), 자는 치헌(致賢), 호號가 해은(海隱), 관향은 안동이다. 시조 휘諱 행후는 삼한벽상아보공신태사3韓壁上亞父功臣太師이다. 휘諱 지정(至正)은 좌윤공파비조佐尹公派鼻祖이며, 19대조 휘諱 응일(用一) 선조는 고려 충숙왕 때 문하시중을 지냈고, 18대조 휘諱 희정(希正) 선조는 시문정좌의정諡文靖左議政이다. 고려말 약관에 진시문과親試文科를 급제

하신 17대조 휘諱 초(超)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며 고향 안동부 영춘산에서 은거에 들었다. 고려의 지식인을 달랠 젊은 문신이 필요했던 태종 임금이 성균관대사성과 함경도관찰사, 하삼도경차관下三道敬差官 등 무려 다섯 차례나 당상관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출사하지 않고 조선의 백이숙제가 되었다.

단종시화로 경상도 연일 대장신 유배지에서 생을 마친 임향조 휘諱 수해(壽海) 사정공(司正公)이 15대조, 대가에 급제 병조 예조정랑과 진주병마절제사를 지낸 명종 때의 대학자 귀봉공龜峯公 휘諱 덕린(德麟)이 11대조이다. 10대조 휘諱 사민(士敏) 매헌공梅軒公은 임란의병장이다. 임란후 선조로부터 안양현감을 제수받고도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으며 당상관좌승지경연참찬관堂上官左承旨經筵參贊官에 효령으로 정려를 받았다.

9대조 휘諱 응림공應立公은 진사시進士試에서 3등으로 입격人格하신 생진(生進)이다. 문예명세가가文藝鳴世家로 이름을 떨친 고조 휘諱 정오(正五)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증중(증중) 휘諱 학형(學亨)은 종이품가신대부從二品嘉善大夫, 조부 휘諱 필행(必行)은 통정대부영양위부호군通政大夫龍驤衛副護軍이다.

해은선생은 이렇듯 대대로 성리학을 숭상하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정신을 이은 가문에서 1906년 6월 20일 경주시 울동에서 통정대부중추원의관충청도관찰부판관호교포도通訓大夫中樞院議官忠清道觀察府判官號錦圃 재운(在運(1855~1915)공과 숙인 김해김씨 사이에서 육남삼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1921년 학성이씨鶴城李氏 휘諱 옥성(玉錫)의 따님 말생(末生) 법호(法號) 현정(顯貞) 화정(華正)과 혼인하여 삼녀이남을 뒀다.

해은 선생은 1930년 조선총독부 한의약업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나 한의(韓醫)보다는 시를 짓는데 평생을 바쳤다. 한산대첩제전開山大捷祭典, 진해병산시단한시백일장鎭海屏山詩壇漢詩白日場 등에서 장원 아니면 입특선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며, 1970년 이후는 심사위원과 시문추천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운곡서원, 안동능동사중창성금묘금安東陵洞齋舍重創誠念募金, 경주향교, 서악서원 집례 행공 등 모신돈목募先敦族宗親이 돈독하고 유림에도 적극적이었다.

포항에서의 노후는 사부대명(詞賦大鳴)의 문장가로 존송(尊送)을 만큼 한학 관련 행사에 초대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해은선생은 일상이 철학적이고 시이다. 삶의 굵이굵이마다 삶의 마디마디마다 그 흔적이 시에 묻어 있다. 그 삶의 철학이 돌에 새겨져 경주 울동에 우뚝 서 있다.

칠월 우거지에서 생각하며
 (七月寓懷, 칠월우회)

孤人七月過炎天(고인칠월과염천)
 외로운 사람 칠월 염천을 지내자니
 天際火雲 兀邊(천계화운을울변)
 하늘은 온통 불 구름이 뒤덮었구나.
 齊棚老妻白日(제담노처안백일)
 명석자리 늙은 아내는 낮잠에 빠졌고
 遊方稚子浴清川(유방치자욕청천)
 놀러간 아이들 맑은 내에서 목욕한다.
 并看庭鷄相逐食(병관정계상추합)
 뜰 앞 닭들이 먹이 쪼는 것 구경하니
 俱飛鷺鳥自來然(구비죽조자래연)
 지붕 위 새들은 절로 날아 찾아온다.
 樂道安貧吾健在(낙도안빈우건재)
 가난하지만 내 도를 즐기며 살자니
 夕陽風色下鵲前(석양풍색하갈상전)
 석양 그림자가 술잔 앞에 내려온다.

권행완 편집국장



시비 제막식



시비 앞에서 가족 기념 촬영